

현 경 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음악교육시기가
음악전공에 미치는 영향

200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전 윤 미

음악교육시기가 음악전공에
미치는 영향

현 경 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전 윤 미

인 준 서

전 윤 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조기음악교육의 교육적 의미와 이론을 정리하고 음악교육시기가 실제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음악교육시기의 중요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성신여대, 건국대, 단국대, 중앙대의 4년제 대학교의 음대 재학생 3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설문 내용은 연구자가 참고문헌과 논문들을 참고하여 직접 제작한 것으로 지도교수의 조언을 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자료처리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조기음악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 $\chi^2(p)$ 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 $**p<.01$, $***p<.001$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생들의 처음 음악공부를 시작한 나이가 어릴수록 음악을 시작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학교, 학원에서의 음악교육이 음악공부를 계속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현재의 음악전공 공부시기가 빠를수록 학교, 학원에서의 음악교육이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음악전공 공부를 늦게 시작한 전공생일수록 자신의 음악에 대한 관심이 전공 선택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전공생들의 음악을 배운 기간이 길수록 개인적으로 배워 온 음악공부가 현재 전공실기를 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전공생들의 음악 전공 공부를 시작한 시기가 어릴수록 부모님의

음악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거의 대부분의 음대생들이 자신의 미래 2세의 음악교육을 7세 이하의 나이일 때 가르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조기음악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조기음악교육이 음악전공에 있어 전공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며 특히 ‘음악을 배우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음악전공을 전공하는데 있어 더 수월하다는 의견들을 통해 조기음악교육이 음악전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조기음악교육의 올바른 지표가 설정되기를 바라며 기초 연구자료 제시를 통하여 조기음악교육 연구에 있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문제.....	3
4.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1. 기초이론배경.....	5
1) 조기음악교육의 중요성.....	5
2) 조기음악교육의 교육적 가치.....	7
(1) 음악적 감각 발달에 미치는 영향.....	7
(2) 지능발달에 미치는 영향.....	11
(3)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13
3) 조기음악교육과 환경.....	14
2. 선행연구 고찰.....	16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및 범위.....	20
2. 연구 방법 및 도구.....	20
3. 연구 기간.....	22

4. 연구 분석 방법.....22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문항별 빈도분석.....23

2. 교차분석.....37

(1) 어렸을 적 음악적 경험.....37

(2) 주위의 음악적 환경.....39

(3) 청소년기 음악적인 경험.....41

(4) 현재 배우고 있는 음악전공에 관한 의견.....44

(5)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배워 온 음악공부의 영향.....47

(6) 현재 음악에 대한 자신의 선호도와 견해.....48

3. 미래의 2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52

(1) 미래의 2세에게 조기음악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52

(2) 미래의 2세에게 조기음악교육을 시키지 않으려는 이유.....54

I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56

2. 제언 및 후속연구.....59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1. 설문지

표 목 차

〈표-1〉 여덟 가지 유형의 지능.....	14
〈표-2〉 설문지 영역별 내용과 문항 수.....	26
〈표-3〉 전공.....	29
〈표-4〉 맨 처음 음악을 배운 경험(악기, 성악, 작곡 등 포함).....	30
〈표-5〉 음악을 처음 배운 시기.....	31
〈표-6〉 처음 음악을 배우게 된 동기.....	31
〈표-7〉 처음 음악을 배운 기간.....	32
〈표-8〉 주위에 음악을 전공했거나 하는 사람.....	33
〈표-9〉 집에 소유하고 있는 악기.....	34
〈표-10〉 초·중·고 시절 음악활동의 경험.....	35
〈표-11〉 음악을 계속 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	36
〈표-12〉 현재의 전공을 선택하게 된 동기.....	37
〈표-13〉 현재의 음악전공 공부를 시작한 시기.....	37
〈표-14〉 중간에 전공 공부를 쉰 경험.....	38
〈표-15〉 만약 쉰 적이 있다면 그 기간.....	39
〈표-16〉 지난 1년간의 실기 성적의 평점.....	39
〈표-17〉 우리나라 대학교 전체 음악전공자들 중 본인의 수준에 대한 의견.....	40
〈표-18〉 현재 자신의 음악전공 실력에 대한 만족도.....	41
〈표-19〉 개인적으로 배워 온 음악공부가 초·중·고 시절 음악 수업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견.....	42
〈표-20〉 개인적으로 배워 온 음악공부가 현재 전공실기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의견.....	43

<표-21> 개인적으로 배워 온 음악공부가 현재 전공 수업 중 시창·청음 수업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의견.....	44
<표-22> 본인이 가장 즐겨 듣는 음악.....	44
<표-23> 부모님이 본인에게 음악공부를 시키신 이유에 대한 생각.....	45
<표-24> 만약 2세를 낳을 경우 아이의 음악교육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의견.....	46
<표-25> 2세에게 음악교육을 시킬 경우 몇 세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47
<표-26> 처음 악기(성악, 작곡)를 배우게 된 동기는?.....	49
<표-27> 주위의 음악을 전공했거나 전공하는 사람은?.....	51
<표-28> 초·중·고 시절 경험했던 음악활동 분야는?.....	52
<표-29> 음악공부를 계속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은?.....	55
<표-30> 현재의 전공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58
<표-31> 지난 1년간의 실기 성적의 평점은?.....	60
<표-32> 전공실기 하는데 있어서 어려서부터 개인적으로 해온 음악공부가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까?.....	61
<표-33> 본인이 가장 즐겨 듣는 음악은?.....	62
<표-34> 부모님이 자신에게 음악공부를 시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64
<표-35> 2세의 악기레슨 적정나이는 몇 세라고 생각하는가?.....	65
<표-36> 미래의 2세의 음악교육을 시킬 의향이 있는가?.....	5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음악은 인류의 문명과 함께 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또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음악을 쉽게 접하고 있으며 음악이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언어로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음악은 말이나 몸짓보다는 음과 리듬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언어적 소통처럼 어린이에게 많은 것을 학습시킨다. 예를 들어 갓난아기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처음에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듣지만 그러한 소리들을 계속 들으면서 그 소리들을 이해하게 되고 학습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¹⁾ 그리고 음악은 인간의 정서적인 면과 지적인 면 모두를 발달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서적으로 윤택하게 해 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나 마찬가지로이다.

이렇듯 인간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음악이 특히 어린 나이일수록 좋은 영향을 더 많이 끼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론들을 통해 밝혀진바 있다. 유아들의 초기의 음악적 경험이 음악적인 감각 발달시킬 뿐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창의성을 자극시켜 주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개발시켜 준다. 그리고 유아들의 정서적 안정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1) 이기숙, 김영주. 「유아음악교육」 서울 : 학문사, 1996, p.4

오늘날의 사회는 핵가족화와 경제적 여유로 인해 가정에서 한 두 명의 자녀들을 낳아 더 잘 교육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태교뿐만 아니라 조기교육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 뿐 아니라 조기교육에 관한 연구도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타고난 음악적 지능과 잠재력은 대부분 어린 시기에 발달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정점을 이룬다는 연구결과들에 의해 이 시기의 음악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다.²⁾ 그러므로 이러한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조기음악교육은 단순한 음악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음악적 감각들을 개발함으로써 인해 음악적인 면과 함께 전 영역에 걸친 교육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에게는 그들의 주위환경을 흡수하는 놀라운 잠재능력이 있다. 예를 들어 스즈키는 독일의 어린이가 3살의 나이에 독일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그는 이런 현상을 보고 어린이의 잠재력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만약에 어린이들이 이와 같이 어려운 언어를 이해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면, 음악도 이 시기에 가르치기만 하면 역시 높은 수준의 연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³⁾

세계의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서 2-3년이 되면 말을 하게 되고, 5-6세쯤 되면 4000단어 이상을 활용할 수 있는 무서운 능력을 가졌다고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국으로 이민 간 2세들이 1.5세들보다 문화적으로든 언어적으로 훨씬 더 미국문화에 잘 적응하고 언어적인 면에서도 더 미국인 같이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⁴⁾

특히나 음악을 전공하는 전공자들에게 있어서의 음악교육시기가 빠를수록 비전공자들에 비해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사실은 여러 음악가들

2) 나운영. 「음악조기교육과 재능개발」 서울 : 음악춘추사, 1977, p.34

3) 최시원. 「음악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 다라출판사 1999. p.29

4) 최시원. 상계서. p.18

을 통해 증명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조기음악교육이 대가들만의 성공담이 아니라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배우고 있는 음악전공생들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 그러한 음악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조기음악교육의 교육적 의미와 이론을 정리하고 음악교육시기가 실제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음악교육시기의 중요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기 음악경험이 현재의 음악전공에 영향을 주었는가?

둘째, 주위의 음악적 환경이 현재의 음악전공에 영향을 주었는가?

셋째, 음악전공에 대한 동기와 실력이 음악을 시작한 시기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개인적으로 배워온 음악공부가 현재의 학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

다섯째, 현재 음악에 대한 자신의 선호도와 미래 2세의 조기음악교육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4. 연구의 제한점

일부 대학교의 학생들만을 설문조사하였기 때문에 모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II. 이론적 배경

1. 기초이론 배경

1) 조기음악교육의 중요성

원래 조기교육이란, 학령에 도달하지 않은 아동에게 일정한 커리큘럼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체로 만 4~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유아의 지적 잠재력을 조기에 개발하거나 훈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⁵⁾

아동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미숙하고 특히 사회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며 비사회적이기는 하나 발달 속도가 대단히 빠르며 인격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⁶⁾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조기 음악교육은 인격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유아 때에 실시하여 유아의 창의력 개발과 감수성을 개발시키고 나아가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인간다운 인간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조기음악교육은 취학 전 아동들에게 음악적 재능을 길러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 개발에 영향을 끼친다. 그 예로 음악교육을 통해 EQ가 발달하고 언어능력, 기억력, 집중력, 창조력, 인내심, 협동심 등을 보다 빨리 개발시킬 수 있다. 즉, 조기음악교육을 통하여 모든 아동의 사회적·정서적·지적·신체적 발달에 크게 공헌한다.

음악의 교육면에서도 아동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음악적 성장에 중요한 요인인 음악성 혹은 음악적 제 기능은 감각이나 지각 등 신체기관의 종적인 반응과 감정이나 지적 기능 등 정신작용이라 볼 수 있

5) 「두산 세계대백과」 서울 : 두산, 2001

6) 유덕희. 「음악교육학 개론」 서울 : 학문사, 1973, p.189

다. 이런 것들은 아동기에 빠른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적절한 교육은 아동의 창조성과 개성적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음악 교육면에서는 아동들에게 소리를 탐색하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고 음악의 근본 요소들에 대한 능력을 진단하여 아동들에게 알맞은 교육을 함으로써 아동의 창조성과 음악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⁷⁾

유아기 때부터의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통하여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능력을 신장키시며 음악을 단순히 정서교육의 일환으로 그치지 않고 인간 형성 및 인간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음악경험을 시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다.

음악교육자 코다이(Zoltan Kodaly)는 예술교육에 관해서 언제 음악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적당한가라는 질문을 받자 ‘태어나기 아홉 달 전부터’ 라고 대답하며 “학교에서 음악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은 너무 늦다. 어린이는 취학연령이 되기 전에 음악으로부터 이미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⁸⁾ 즉 조기음악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조기음악교육이 아동의 지능개발이나 창의성과 지적인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노래하고 주변에 있는 물체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음악적 특성을 살려 올바른 지도와 적절한 환경을 제시한다면 음악적 능력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유아에게 음악지도를 하는 것은 전인교육의 한 단계로서 음악을 통하여 유아의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오늘날 유아교육 특히 조기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조기교육이 유아의 정서교육이나 전인교육에 효과적이라는 점 이외에도 유아의 지능발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태교는 태아의 지능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태아의 지능발달이 전

7) Barbera L. Andress, 「*Music in early Childhood*」 (Washing D.C,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1973, p.2

8) 송주승, 이영백. 「조기음악교육의 실태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음악학회 논문집 28권, 단일호, 2003, p.108

체 지능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화이트(Burton L. White)박사의 말은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더없이 강조하고 있다.⁹⁾

2) 조기음악교육의 교육적 가치

(1) 음악적 감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음악적 성장의 요인으로서의 음악성 혹은 음악적 능력 등의 음악적 기능은 감각이나 지각 등의 신체 기관의 반응과 감정이나 지적 기능 등의 정신작용이라 볼 수 있는데 이들 기능은 개별적 작용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또한 하나의 완전한 신체적인 기능을 구성한다. ¹⁰⁾

① 청력과 청각의 발달

청력이란, 듣기를 귀의 측면에서 본 말이고 귀 기능의 장애 정도를 나타내는 말에 불과하지만 청력과 유사한 것으로 청각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청력보다 더 큰 의미를 포괄하는 것으로 음의 변별, 인지, 이해라고 하는 고차적 심리 활동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청각은 시각과 마찬가지로 고등감각으로 피부감각이나 운동감각 등의 하등 감각보다 그 기능이 완전히 작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기능들은 또한, 발달 순서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는데 아동은 사고력과 표현력이 늦게 발달하는 반면 감각 기능은 일찍부터 발달하며 이러한 감각 능력 중 그 발달 시기가 가장 빠른 감각이 곧 청각으로 시각에 비해 그 분화가

9) Burton L. White, 광덕영 역, 「화이트 박사의 육아전서」 서울 : 학문사, 1995, p. 49

10) 이용일. 「음악교육학개설」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1989. p.36

빠르다.¹¹⁾

인간의 소리와 음악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태어나기 오래 전부터 발달되며 태아는 임신 후 3주부터 심장박동이 시작된다. 그것은 자동적인 ‘음악적 반응’으로 임신한지 3개월부터 외부의 소리에 반응하고, 6개월부터 음악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¹²⁾ 그리고 보통 생후 2개월이 되면 사람의 목소리를 변별할 수 있게 되고 5-6개월 이후에는 물체의 소리를 듣고 가릴 수 있으며 음원의 위치도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

1~2세는 주변의 소리에 관심을 갖게 되고, 2~3세 반까지의 유아 또한 계속 소리와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며 음악에 대한 집중력과 감상력도 늘어난다고 한다. 그리고 3~5세 이후까지의 기간에는 음색의 배합과 순서에 대한 인식을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내재화하고 개념화하게 되며 음의 변별 능력은 급속하게 발달하는데, 8세부터 10세가 되면 정점에 이른다¹³⁾고 한다. 이때의 음악은 이제 단순히 소리 이상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음악이 심미적인 차원에서 느껴지고 사고하며 즐기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시기이며 또한 음악적인 경험과 자기가 들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¹³⁾

이것과 더불어 청각각은 정적인 시각과는 다르게 음의 시간적인 흐름을 감지하기 때문에 그 기능은 매우 역동적이며, 생생한 심정 작용을 유발하는 힘이 강하며 그 흐름을 한 가지 형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때로 음의 밝고 어두움, 색채감, 크고 작음, 무겁고 가벼움을 느끼는 것은 음의 시각이나 촉각 또는 심정적 경험의 기억하는 과정을 통해 보충되기 때문이다.

이를 교육적 의미로 살펴보자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의 시기는 청각각이 가장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음악교육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

11) 이용일. 상계서 p.36

12) 이기숙, 김영주 편역. 「유아음악교육」 서울 : 교문사, 2004, p.18

13) 이기숙, 김영주 편역, 상계서 p.47

기가 지나면 적어도 훌륭한 음악적 능력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음악적 환경을 제공한다면 음악적 기능이 신장될 수 있을 것이다.¹⁴⁾

② 운동감각의 발달

운동감각은 음악의 기본적인 요소인 리듬지각과 가장 관계가 깊으며 이 감각에는 시각, 평형감각, 청각 등과 같은 공간을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감각이 포함되어 있다.¹⁵⁾ 또한 근육의 수축, 긴장의 자극에 의해 운동감각이나 위치감각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운동감각은 개인의 자질이나 연습량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 발달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얻기는 어렵지만 근육과 신경의 발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무센(P.H. Musseon)은 근육과 신경의 발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근육의 발달은 태아기부터 유아기의 보행 초기에 급속하게 발달하며, 그 후는 완만하게 발달한다. 여아는 12-15세 사이, 남아는 15-16세 사이에 또 한 번 급속하게 발달하고, 그 후의 발달은 차츰 감퇴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신경의 발달은 생후 6년간 매우 급속하게 발달하는데, 그 후는 속도가 완만해진다.”¹⁶⁾

아동은 어느 정도 근육운동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러한 운동 감각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근 감각에 작용하는 것은 운동신경이다. 따라서 운동신경이 발달하지 않으면 근 운동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며 근 운동에 좌우되는 리듬 지각도 불안정하게 된다.¹⁷⁾

운동감각은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 감각의 성장은 힘들다고 볼 수

14) 이용일, 전계서 p.37

15) 유덕희, 「유아발달과 음악교육」, 서울 : 개문사 1983 p.27

16) 이용일, 전계서 p.39

17) 안종배, 「음악교육학개론」, 서울 : 교육과학사 1991 p.61

있으며, 음악 학습을 통해 양손의 손가락 움직임으로 근육의 수축이나 이완 등으로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근육발달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음악교육에 있어서 운동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리듬감각의 발달은 유아기에서 초등학교 시기가 중요하며, 이 시기에 리듬을 맞추어 반응하는 활동을 통하여 독창적인 사고력이나 창조성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운동감각의 발달을 고려하여 각 발달 단계에 맞는 음악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율적인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③ 지각의 발달

지각이란, 감각기관을 통하여 들어온 정보를 읽어 나가는 과정으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현상을 감각 기관을 통해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음악이나 음악 학습에서 경험한 모든 내용들은 청각각 기관에 의해서 일어나는 지각에 의한 것이다.¹⁹⁾

청각, 시각 등의 감각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그 기능이 감퇴하는 것과는 달리 지각은 일반적으로 유아기, 아동기의 여러 감각의 발달에 따라 정점을 이루며 그 후에도 환경, 경험, 노력 등에 의해 더 발달될 수 있다는 것이 대조적이다.²⁰⁾

사람의 지각은 대부분 유아기에 완성되며 6세를 전후하여 가장 활발한 지각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취학 이전의 유아기를 어떤 교육적 환경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면서 보냈느냐에 따라서 성인이 되어서의 능력과 인성이 결정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유아는 사회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강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지만 지각발달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인격의 기초가 확립된다고 볼 수 있다.²¹⁾

18) 이용일, 전계서 p.39

19) 안중배, 전계서 p.62

20) 이용일, 전계서 p.40

21) 송주승, 이영백, 송주병 「시대별 음악교육의 흐름 및 조기음악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

(2) 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

최근 세계에서 손꼽히는 명문 대학에서 실시한 과학적인 연구를 보면, 어릴 때부터 클래식을 접한 아동들은 다른 아동들에 비하여 읽기 능력이 뛰어나며 학력 테스트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조기음악교육이 지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²²⁾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내면에는 여덟 가지 유형의 지능이 있으며 한 개인은 그 여덟 가지의 지능을 모두 지닐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능이 고정되었다거나 미리 정해진다는 과거의 개념과는 반대로, 인생을 통하여 다양한 일을 배울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언어적 지능, 논리/수학적 지능, 음악, 신체/운동, 시각/공간, 대인, 인간내면, 자연주의자의 지능이 포함되는데 언어적 지능, 논리/수학적 지능은 학교에서만 개발될 수 있지만 음악적 지능은 그 강력한 정도가 아주 크기 때문에 악기를 배우거나 예술분야 공부를 하면 나머지 일곱 가지 유형의 지능 또한 동시에 발달할 수 있다고 한다.

<표-1> 여덟 가지 유형의 지능²³⁾

지능	정의	지능과 음악 및 예술의 관련성
언어적	단어를 잘 사용하고, 쓰기와 읽기를 즐김. 구어체 단어를 통해 즐기는 것에 능숙함	드라마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신을 표현하고, 대사를 암기하며, 관객 앞에 서서 대사를 읊는다. 창조적 작가는 문자를 이용하여 사상과 생각을 가공해 낸다.
논리/수학적	숫자를 사랑하고, 논리적이며, 추론과 배열의 능력이	음악을 배울 때, 학생들은 분수나 비율, 도형간의 관계, 배열과 반복도 배운다. 이 아이들은

구」, 한국음악학회 논문집 음악연구 33권, 2003. p.8

22) 김은정 편역, 「좋은 음악이 총명한 아이를 만든다」, 서울:경성라인, 1994, p. 14

	있음. 패턴간의 관계를 파악함.	얼마간 정확한 박자를 세는 법을 배우고, 음악적 주제의 유형과 반복을 파악하며, 다양한 음악 형식(론도 형식 등)을 이해한다. 음악은 정확한 수학 개념의 이해를 강화한다.
시각/공간적	그림과 이미지 속에서 시각화. 마음속으로 본 것을 창조할 수 있으며, 상세한 그림과 스케치에 능숙하며, 3차원 공간을 이해함.	공간적 지능은 악기를 배울 때 향상된다. 그림과 시각적 이미지를 마음속으로 본다. 시각 세계를 구체적으로 재건할 수 있다. 벽화를 건조하는 예술가들은 공간 관계를 이해하여 비례상의 균형을 잡는다. 드라마를 배우는 학생들은 극적인 연기를 무대에 올리는 데 공간 능력을 사용한다.
신체/운동적	신체를 의식하여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함. 손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음.	아동이 음악에 따라 몸을 움직일 때, 무용은 육체의 조화와 기민함, 크고 작은 근육의 발달을 증대시킨다. 예술가와 장인들은 손을 사용하여 예술적 걸작을 창조한다. 악기를 배우는 학생들은 손가락과 팔의 기민함과 움직임을 배운다.
대인	타인과 협동하고, 그를 이해할 수 있음.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음.	오케스트라나, 드라마, 무용에 있어서 학생들은 팀워크의 중요성을 배운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동료와 함께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성장한다. 오케스트라 구성원들은 성공적으로 연주하기 위해서 협동하고 상대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드라마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서로 힘을 합쳐야 무대를 색칠하고 연극을 공연할 수 있다. 타인의 예술 작품에 대해서 예술가가 비평한다.
인간 내적	자신의 존재를 알고 이해함. 내면의 감정과 정서를 의식함. 명상과 관조를 즐김. 자기 절제가 강하고 독립적이며 목표지향적임.	창작 과정에서 예술가는 독립적인 사상가이자 창조자이다. 음악가는 독자적으로 작곡한다. 예술가는 독립적인 예술 작품의 표현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한다. 음악과 예술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음악적	멜로디와 리듬을 이해하고 만들어냄. 음에 맞게 노래하고 음악을 즐기며, 악기를 연주함.	아동의 읽기와 수학 능력에 도움이 된다.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극한다. 외국어 학습이나 사실 암기, 생각 유지에 도움이 된다.

스피어맨(C.E.Spearman)은 지능에는 일반 지능요인(g요인)과 특수 지능요인(s요인)으로 구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지능이 높다든가 낮다고 말할 때의 척도는 일반 지능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냐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지능검사는

23) 안종배, 「음악교육학개론」, 서울 : 교육과학사 1991 p.196-197

이 g요인에 의한 것이며 이것은 예술기능, 음악기능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에 비해 구체적이고 특수한 분야의 지능을 특수 지능요인이라고 하고 이를 s요인이라고 한다. s요인은 어느 정도의 g요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g요인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공부 잘 하는 아이가 반드시 예능을 잘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능을 잘 하려면 지능이 높아야 할 필요는 있는 것이다.²⁴⁾

즉 음악 기능능력은 지능능력에서 일반 지능능력에 속하지 않고 특수 지능능력에 속하며 g요인과 s요인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음악 연주 기능이 우수한 사람은 역시 지능지수도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훌륭한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해력이나, 판단력, 독창력 등의 능력이 뛰어나지 않고는 음악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또한 음악과 깊은 관계에 있는 인간의 능력은 창의력이다. 지능은 얼마나 잘 아느냐를 지칭하는 것이고 창의력은 문제해결에 있어서 지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동원하느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음악에 있어서의 창의력 개발과 표현은 동원할 수 있는 지능이 많이 있을 때 더 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²⁵⁾ 즉 음악적인 활동이 지능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름답고 건전한 음악은 아동에게 순수함과 자아를 인식하게 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기쁨을 안겨주며 밝은 감정을 가지도록 도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만든다.

특히나 조기음악교육은 기술이나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아이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옳다. 말로

24) 최시원. 전계서. p48-49

25) 최시원. 상계서. p.49-51

자신을 표현하기 서투른 아이들도 피아노를 치면서 또는 다른 악기를 연주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음악을 통해 해소시킬 수 있다.

또한 음악이 문자나 언어, 혹은 구체성을 띤 어떠한 매개체 없이 직접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여 ‘아름다움’에 대해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른 교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특성이다. 훌륭한 음악이 가져다주는 미적 감동은 어떤 것은 아름답게, 어떤 것은 정결하게, 어떤 것은 강렬하게, 또 어떤 것은 진실에 대한 감동 등을 주는 것으로서 간접적인 의미에서 윤리적 평가를 부여하며, 본질적으로는 음악적 감정에 의해 보다 수준 높고, 보다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도록 도와준다.²⁶⁾

3) 조기 음악교육과 환경

아동의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유전과 환경이 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따로 따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작용하여 영향을 주며 그 중에서도 환경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론이 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행동주의자 왓슨(J.B.Watson)은 “나에게 건강하고 형태가 올바른 갓난 아기 열둘을 주시오. 그리고 이들을 기를 수 있게 내 자신이 설계한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 그들을 기를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나는 어느 아이이건 마음대로 뽑아 훈련시켜 그 아이가 타고난 재능, 취미, 경향, 능력, 적성, 인종 등에 관계없이 의사, 변호사, 예술가, 사업가, 심지어는 거지, 도둑 무엇이든 지 주문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²⁷⁾ 이와 같이 환경은 인간에게 중대한 존재이며 유아에게는 더욱 그

26) 이용일. 전계서. p.35

렇다.

이처럼 환경은 어린이들의 음악능력 발달에 대단히 큰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음이나 음악이 어린이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들에게 상당한 자극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²⁸⁾

일반적으로 환경이라 함은 개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환경을 말하며, 이는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물리적, 생물학적, 사회적, 정신적인 모든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레빈(K.Lewin)은 환경을 정의하여 인간의 행동은 유기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했다.²⁹⁾

종래까지도 음악적 재능은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소수의 천재에게만 부여된 소질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음악적 재능이란 후천적인 교육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환경이 음악적 적성에 미친 영향을 3년간에 걸쳐서 과학적으로 연구한 고든(E. Gordon)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보다 다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의 음악적 적성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증명하였다.³⁰⁾ 이것을 통해 어린이들의 음악능력 발달에는 환경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음악적 능력은 특히 유아기일 때 가장 급속도로 발달하기 때문에 따라서 대부분의 생활을 가정에서 하는 이 시기의 유아들의 가정환경을 잘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원식은 가정환경을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으로 나누고 물리적 환경은 거주지의 환경, 가옥의 크기, 경제적 지위, 내부 문화시설 등을 말하며, 심리적 환경은 가정 내의 심리적 분위기를 말한다고 하였다.³¹⁾ 특히 음

27) 최시원. 전계서. p. 56

28) 정세문, 「음악교육」, 한국의 교육 제 6집, 서울 : 대한교육연합회, 1963 p.78

29) 유덕희. 「음악교육학개론」, 서울 : 학문사, 1973, p.90

30) E.Gordon, 「A three - year longitudinal predictive validity study of the musical aptitude profile」, (Lowa City: university of Iowa press) 1967 p.44~48

31) 정원식, 「정의의 교육」, 서울 : 배영사, 1969

악적 능력이 싹트고 급속히 성장하는 시기의 가정에서의 음악적 환경조성은 어린이의 음악적 능력발달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가정의 음악적 환경조성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러한 바람직한 음악적 분위기로 만들기가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놀이나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 유아기의 부모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선행연구 고찰

조기음악교육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김수진³²⁾은 “조기음악교육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중학생을 중심으로”에서 조기음악교육을 받은 학생 중 1,2,3학년의 각 60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기음악교육을 통한 정서, 생활태도, 사회성 함양, 학업 등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음악적 관심에 대한 자가진단을 파악하여 반응을 분석하고 결과를 논의하였다. 그 결과 첫째, 조기음악교육이 청소년들의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며 청소년 자신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둘째, 조기음악교육을 통해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음악수업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게 되었으며 호기심을 자극하고 조기부터 쌓은 음악적 지식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보다 쉽게 음악을 이해할 수 있고 음악수업에 대한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청소년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조기음악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조기음악교

32) 김수진(2006), “조기음악교육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중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육을 통해서 음악의 다양한 경험들을 체험하면서 참다운 인간성을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조기음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조기음악교육을 통한 정서, 생활태도, 사회성 함양, 학업 등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음악적 관심에 대해 조기음악교육을 받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기존의 많은 논문들이 조기 음악교육의 중요성만을 연구한 것에 비해 실제 현장에서 조기음악교육에 대한 영향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조기음악교육을 받은 중학생 집단과 그렇지 않은 중학생 집단을 같이 설문조사하여 비교하였더라면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든다.

허은진³³⁾은 아동기 조기 음악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교육방법(피아노 교육 중심)에 대한 연구를 통해 피아노 학습을 위한 환경 및 시설의 미비, 다양한 음악교재 및 교구의 부족, 정규과정을 이수한 교사의 부족, 학부모의 음악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등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논문을 통해 아동의 음악교육은 아동 스스로 음악을 체험하고 자유롭게 그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생활된 진정한 음악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피아노를 통해 조기 음악교육현장에서 교사와 부모가 인지하고 실행해야 할 교육방법들을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도 방법 등과 음악이론과 실기가 종합된 체계적인 피아노 학습지도로 효과적인 피아노 교육이 가능 한 음악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피아노 교육의 문제점을 시사해 준 점과 효과적인 음악적 표현을 위한 테크닉을 제시하여 실제 피아노 교육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피아노 교육의 문제점을 실제 현장에 있는

33) 허은진(2004), “아동기 조기 음악교육의 필요성과효과적인 교육방법 : 피아노교육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 교육대학원)

피아노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라면 더 의미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정화순³⁴⁾은 조기교육에 있어서 음악지도의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음악 발달 과정에 따른 체계적이고도 연관성 있는 음악 학습의 효율성을 표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창의성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조기교육의 효율적 음악지도를 고찰한 다음 실제지도를 위한 교수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음악지도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도방법의 유형을 소개하고 20세기 이후 현대 음악가들의 조기교육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음악교육을 위해 좋은 환경과 질 좋은 자료(교재)와 악기 사용을 하여 새롭고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주입해 음악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건전한 조기교육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조기교육을 받은 20세기 이후 현대 음악가들의 실태를 보여준 점은 신선했지만 전체적으로 학문적인 연구만을 하여 진부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조기교육의 실제라는 부분에서 가창과 기악 뿐 아니라 작곡, 감상의 영역까지 더 첨가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고세연³⁵⁾은 “조기음악교육의 지도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음악을 처음으로 접하는 유아들의 성장발달을 고려하여 보다 창의적으로 실질적인 음악교육 지도방안을 연구하고 고찰함으로써 조기음악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효과적인 조기음악교육방법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였는데 음악교육의 구성요소와 성장과정에 따른 음악적 능력, 유아 음악지도법 등으로 나눠 설명하였고 음악교육의 구성요소는 음악적인 소양과

34) 정화순(2004), “바람직한 조기음악교육의 유형과 지도방안” (석사학위논문, 경원대 교육대학원)

35) 고세연(2000), “조기음악교육의 지도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기능은 물론 어린이의 심리를 잘 파악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학습 환경조성, 마지막으로 ‘교육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성장과정에 따른 음악적 능력을 성장 단계별로 잘 적용하여 지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조기음악교육의 대상이 유아이므로 놀이를 통한 음악활동과 신체로 직접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유아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켜 음악과 친숙해지도록 지도하고 지속적인 음악성장을 유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교육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에 대해 본 연구자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아음악 지도법을 노래 부르기, 청·감각 익히기, 리듬 익히기 등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제시하여 실제 현장에 있는 교사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모은 것 보다 연구자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더 신선하고 의미 있는 논문이 되지 않았을까 점에서 아쉬움이 든다.

위의 선행연구를 고찰해 본 결과 조기음악교육을 위한 논문들로는 효율적 지도 방안을 제시한 논문들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기음악교육의 중요성과 효율적 지도 방안에 관하여 연구한 논문들은 조기음악교육의 필요성과 지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도방안이 실제 교육 현장의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본 논문은 효율적 지도 방안을 제시한 논문에서 설문지 제작과 이론적 배경을,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한 논문에서는 설문지와 설문조사방법을 참고하여 음악교육시기가 음악전공에 미치는 영향을 음대생을 대상으로 새롭게 연구하였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 및 범위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음악전공생들 중 성신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건국대학교, 단국대학교의 4개의 대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각 전공별 한 학년을 대상으로 성신여자대학교 93명, 중앙대학교 107명, 건국대학교 24명, 단국대학교 99명, 총 323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도구

본 연구는 조사연구방법 중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설문 내용은 연구자가 참고문헌과 논문들을 참고하여 직접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지는 음대생들의 조기음악교육 실태와 인식에 관한 것, 음악적 환경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설문지는 5영역으로 나뉘 객관식 23문항, 주관식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설문지 영역별 내용과 문항수

영역	내용	문항수
응답자의 특성	전공	1
어렸을 적 음악경험	<p>맨 처음 음악을 배운 경험(악기, 성악, 작곡 등 포함)</p> <p>처음 음악을 배운 시기</p> <p>처음 음악을 배우게 된 동기</p> <p>처음 음악을 배운 기간</p>	4
주위의 음악적 환경	주위에서 음악을 전공했거나 전공하는 사람 집에 소유하고 있는 악기	2
청소년기의 음악적인 경험	초·중·고 시절 음악활동의 경험 음악을 계속 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	2
현재 배우고 있는 음악전공에 대한 동기와 실력	<p>현재의 음악전공을 선택하게 된 동기</p> <p>현재의 음악전공공부를 시작한 시기</p> <p>중간에 전공공부를 원 경험과 기간</p> <p>지난 1년간의 실기 성적의 평점</p> <p>우리나라 대학교 전체 음악전공자들 중 본인의 수준에 대한 의견</p> <p>현재 자신의 전공 실력에 대한 만족도</p>	7
개인적으로 배워 온 음악공부에 대한 영향	<p>초·중·고 시절까지 배워 온 음악공부가 초·중·고 시절 음악수업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견</p> <p>개인적으로 배워 온 음악공부가 현재 전공실기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의견</p> <p>개인적으로 배워 온 음악공부가 현재 전공 수업 중 시창·청음 수업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의견</p>	3
현재 음악에 대한 자신의 선호도와 미래 2세의 조기음악교육에 대한 견해	<p>본인이 가장 즐겨 듣는 음악</p> <p>부모님이 본인에게 음악공부를 시킨 이유에 대한 생각</p> <p>만약 2세를 낳을 경우 아이의 음악교육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의견</p> <p>2세에게 음악교육을 시킬 경우 몇 세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p>	5 (주관식1 문항 포함)

3. 연구 기간

본 연구의 연구기간은 2007년 4월 말~5월 초 한 달 동안 성신여자대학교, 건국대학교, 단국대학교, 중앙대학교 음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323명의 학생으로부터 회수하였다.

4. 연구 분석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조기음악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 $\chi^2(p)$ 을 실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p < .01$, $p < .001$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경우 1.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카이제곱의 점근유의확률이 .05 이하일 경우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경우 2. 유의수준 .01을 기준으로 카이제곱의 점근유의확률이 .05 이하일 경우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경우 3. 유의수준 .001을 기준으로 카이제곱의 점근유의확률이 .001 이하일 경우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음대생의 조기음악교육의 실태와 현재의 전공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로 문항별 빈도 분석과 교차분석은 다음과 같다.

1. 문항별 빈도 분석

(1) 전공이 무엇입니까?

전체 설문 응답자 323명 중 성악 전공자는 89명, 작곡 전공자는 63명, 기악은 169명, 기타(타악) 2명이 설문에 응하였다. 이 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표-3>과 같다.

<표-3> 전공

	빈도	퍼센트
성악	89	27.6
작곡	63	19.5
기악	169	52.3
기타	2	0.6
합계	323	100.0

단위 : 명(%)

(2) 처음 배운 악기(성악, 작곡 등 포함)는 무엇입니까?

맨 처음 음악을 배운 경험으로는 피아노가 전체 응답자 중 91%인 294명이 답하였고 이를 보아 음악을 전공하는 전공자들 거의 대부분이 피아노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피아노교육이 다른 음악

교육에 비해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표-4>와 같다.

<표-4> 맨 처음 음악을 배운 경험(악기, 성악, 작곡 등 포함)

	빈도	퍼센트
피아노	294	91.0
바이올린	16	5.0
플룻	1	0.3
성악	8	2.5
기타	3	0.9
무응답	1	0.3
합계	323	100.0

단위 : 명(%)

(3) 이 악기(성악, 작곡)를 처음 배운 시기는 언제입니까?

음악을 처음 배운 시기로는 ‘5-7세’가 전체 응답자중 134명으로 41.5%를 차지하였으며 ‘11세 이후’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2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전체 77.1%의 음악전공생들이 11세 이전에 음악을 처음 접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표-5>와 같다.

<표-5> 음악을 처음 배운 시기

	빈도	퍼센트
5세이전	33	10.2
5-7세	134	41.5
8-10세	82	25.4
11세이후	72	22.3
무응답	2	0.6
합계	323	100.0

단위 : 명(%)

(4) 이 악기(성악, 작곡)를 배우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처음 음악을 배우게 된 동기로 전체 응답자 중 46.1% 인 149명이 부모님의 권유로 음악을 배우게 되었으며 본인 스스로 좋아서 음악을 배우게 된 경우는 127명으로 응답자 중 39.3%를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표-6>과 같다.

<표-6> 처음 음악을 배우게 된 동기

	빈도	퍼센트
나 스스로 음악이 좋아서	127	39.3
부모님이 권유하셔서	149	46.1
주위에서 배우는 사람들을 보고	29	9.0
학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	0.6
기타	13	4.1
무응답	3	0.9
합계	323	100.0

단위 : 명(%)

(5) 처음 이 악기(성악, 작곡)를 약 얼마나 배웠습니까?

처음 음악을 배운 기간으로는 '5년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61.3%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3-4년', '1-2년'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표-7>과 같다. 단, 이 비율은 전공에 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표-7> 처음 음악을 배운 기간

	빈도	퍼센트
1년이하	21	6.5
1-2년	43	13.3
3-4년	59	18.3
5년 이상	198	61.3
무응답	2	0.6
합계	323	100.0

단위 : 명(%)

(6) 주위에서 음악을 전공했거나 전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위에 음악을 전공했거나 하는 사람은 ‘없다’는 의견이 51.1%로 가장 많았고 친척이 20.7%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이 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8>과 같다.

<표-8> 주위에 음악을 전공했거나 하는 사람

	빈도	퍼센트
없다	165	51.1
부모	36	11.2
형제,자매	29	9.0
친척	67	20.7
기타	26	8.0
합계	323	100.0

단위 : 명(%)

(7) 집에 있는 악기를 있는 대로 체크해 주세요.(실로폰, 캐스터네츠, 멜로디언 등 교육용 기본 악기제외)

집에 소유하고 있는 악기에 대한 응답으로 피아노가 전체 응답자 중 298명이 응답하여 맨 처음 음악을 배운 경험에서 피아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피아노라는 악기가 많이 보편화, 대중화 되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표-9>와 같다. 이 문항은 복수응답인 문항이었음을 밝혀 둔다.

<표-9> 집에 소유하고 있는 악기 (복수응답)

	빈도
피아노	298
바이올린	146
플룻	83
첼로	28
기타	42
합계	597

단위 : 명

(8) 초·중·고 시절에 어떤 분야의 음악활동(연주회 등..)을 경험 했습니까 ? (다 체크해 주세요.)

초·중·고 시절 음악활동의 경험에 대한 의견으로 교회나 성당의 성가대가 전체 응답자 중 185명이 응답하였고 뒤이어 음악과 관련된 학교 CA활동을 160명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이 문항은 복수응답임을 밝혀 둔다. 이 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표-10>과 같다.

<표-10> 초·중·고 시절 음악활동의 경험 (복수응답)

	빈도
합창단	123
오케스트라	93
학예회	81
교회나 성당의 성가대	185
음악과 관련된 학교CA활동	160
기타	24
없다	15
합계	681

단위 : 명

(9) 음악을 계속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입니까?

전체 의견 중 25.4%의 응답자가 ‘학교, 학원에서의 음악교육’이 음악을 계속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이었다고 응답하였고 그 뒤를 이어 24.5%의 응답자가 ‘가정에서의 가족과의 음악적 경험’ 또한 음악을 계속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이 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표-11>과 같다.

<표-11> 음악을 계속 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

	빈도	퍼센트
가정에서의 가족과의 음악적 경험	79	24.5
TV매체나 문화행사	30	9.3
학교에서의 CA활동	19	5.9
교회나 성당에서의 음악연주	64	19.8
학교, 학원에서의 음악교육	82	25.4
친구의 음악활동을 보고	9	2.8
기타	39	12.0
무응답	1	0.3
합계	323	100.0

단위 : 명(%)

(10) 현재의 전공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현재의 전공을 선택하게 된 동기로는 전체 응답자 중 62.8%인 203명의 응답자가 ‘음악이 좋아서’라고 답하였고 ‘꾸준히 배워 온 것이라서’라는 의견도 21.4%를 차지하였다. 이 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표-12>와 같다.

<표-12> 현재의 전공을 선택하게 된 동기

	빈도	퍼센트
부모님이 원하셔서	39	12.1
꾸준히 배워온 것이라서	69	21.4
음악이 좋아서	203	62.8
기타	12	3.7
합계	323	100.0

단위 : 명(%)

(11) 현재의 음악전공공부를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현재의 음악전공 공부를 시작한 시기는 45.5%의 응답자가 ‘고등학교 1-3학년’이라고 답해 많은 학생들이 음악적 경험을 어린 나이에 일찍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다르게 전공공부는 늦게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표-13>과 같다.

<표-13> 현재의 음악전공 공부를 시작한 시기

	빈도	퍼센트
3세 이하	2	0.6
4-7세	42	13.0
초등학교 1-3학년	29	9.0
초등학교 4-6학년	28	8.7
중학교 1-3학년	67	20.7
고등학교 1-3학년	147	45.5
무응답	8	2.5
합계	323	100.0

단위 : 명(%)

(12) 중간에 전공 공부를 원 적이 있습니까?

전공 공부를 시작한 후 중간에 전공 공부를 원 경험에 대한 응답으로 39.3%의 응답자가 ‘있다’라고 답하였고 이는 음악전공 공부를 시작한 시기와도 연관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이 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표-14>와 같다.

<표-14> 중간에 전공 공부를 원 경험

	빈도	퍼센트
있다	127	39.3
없다	196	60.7
합계	323	100.0

단위 : 명(%)

(13) 만약 쉼 적이 있다면 약 얼마나 쉬었습니까?

전공 공부를 시작한 후 중간에 쉼 적이 있다는 답을 한 응답자 중 15.2%가 '1-2년'이라고 답하였고 60.7%는 중간에 쉼 적이 없기 때문에 무응답 처리 되었다. 이 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표-15>와 같다.

<표-15> 만약 쉼 적이 있다면 그 기간

	빈도	퍼센트
1년이하	45	13.9
1-2년	49	15.2
3-4년	23	7.1
5년이상	10	3.1
무응답	196	60.7
합계	323	100.0

단위 : 명(%)

(14) 지난 1년간의 실기 성적의 평점 얼마입니까?

지난 1년간의 실기 성적의 평점으로 41.5%의 응답자가 B라고 답하였고 그 뒤를 이어 34.4%의 응답자가 A라고 답하여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의 성적이 A와 B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표-16>과 같다.

<표-16> 지난 1년간의 실기 성적의 평점

	빈도	퍼센트
A	111	34.4
B	134	41.5
C	20	6.2
D	3	0.9
무응답	55	17.0
합계	323	100.0

단위 : 명(%)

(15) 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 전체 음악전공자들 중 본인의 실력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대학교 음악전공자들 중 본인의 실력에 대한 의견으로 ‘중상위 50%이내’라고 답한 의견이 전체 62.8%로 대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 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표-17>과 같다.

<표-17> 우리나라 대학교 전체 음악전공자들 중 본인의 수준에 대한 의견

	빈도	퍼센트
상위 30%이내	46	14.2
중상위 31-50%	157	48.6
중하위 51-80%	99	30.7
하위 81-100%	15	4.6
무응답	6	1.9
합계	323	100.0

단위 : 명(%)

(16) 자신의 현재 음악 전공 실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현재 자신의 음악전공 실력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의견으로 전체 응답자 중 42.7%가 ‘보통이다’라고 답하였고 39.0%는 ‘불만이다’라고 답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52.6%가 ‘보통이다~매우 만족한다’의 긍정적인 답을 하였다. 이 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표-18>과 같다.

<표-18> 현재 자신의 음악전공 실력에 대한 만족도

	빈도	퍼센트
매우 만족한다	8	2.5
만족한다	24	7.4
보통이다	138	42.7
불만이다	126	39.0
매우 불만이다	26	8.0
무응답	1	0.4
합계	323	100.0

단위 : 명(%)

(17) 초·중·고 시절까지 개인적으로 배워온 음악공부(전공악기, 비전공악기, 음악이론공부 포함)가 초·중·고 음악수업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배워온 음악공부가 초·중·고 시절 음악 수업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7.8%가 ‘그렇다’라고 답하였고 89.8%가 ‘조금 그렇다~매우 그렇다’의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개인적으로 배워온 음악공부가 초·중·고 시절의 음악수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이 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표-19>와 같다.

<표-19> 개인적으로 배워온 음악공부가 초·중·고 시절 음악 수업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견

	빈도	퍼센트
매우 그렇다	66	20.4
그렇다	122	37.8
조금 그렇다	102	31.6
그렇지 않다	22	6.8
전혀 아니다	11	3.4
합계	323	100.0

단위 : 명(%)

(18) 현재 전공실기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서 부터 개인적으로 해온 음악 공부(전공악기, 비전공악기, 음악이론공부 포함)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배워 온 음악공부가 현재 전공실기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의견으로 ‘그렇다’라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중 43.0%를 차지하였고 전체 92.9%의 응답자가 개인적으로 배워 온 음악공부가 전공실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하였다. 이 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표-20>과 같다.

<표-20> 개인적으로 배워 온 음악공부가 현재 전공실기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의견

	빈도	퍼센트
매우 그렇다	78	24.1
그렇다	139	43.0
조금 그렇다	83	25.8
그렇지 않다	15	4.6
전혀 아니다	8	2.5
합계	323	100.0

단위 : 명(%)

(19) 현재 전공수업 중 시창·청음 수업을 하는데 어려서 부터 개인적으로 해온 음악공부(전공악기, 비전공악기, 음악이론공부 포함)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배워 온 음악공부가 현재 전공 수업 중 시창·청음 수업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전체 의견 중 77.7%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이 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표-21>과 같다.

〈표-21〉 개인적으로 배워 온 음악공부가 현재 전공 수업 중 시창·청음 수업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의견

	빈도	퍼센트
매우 그렇다	67	20.7
그렇다	102	31.6
조금 그렇다	82	25.4
그렇지 않다	50	15.5
전혀 아니다	20	6.2
무응답	2	0.6
합계	323	100.0

단위 : 명(%)

(20) 본인 가장 즐겨 듣는 음악은 어느 것입니까?

본인이 가장 즐겨 듣는 음악으로 전체 응답자 중 52.0%의 응답자가 클래식을 가장 즐겨 듣는다고 답하였고 그 뒤를 이어 27.2%의 응답자가 대중가요를 듣는다고 답하였다. 이 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표-22〉와 같다.

〈표-22〉 본인이 가장 즐겨 듣는 음악

	빈도	퍼센트
클래식	168	52.0
대중가요	88	27.2
ccm	30	9.3
팝송	16	5.0
jazz	8	2.5
기타	11	3.4
무응답	2	0.6
합계	323	100.0

단위 : 명(%)

(21) 부모님이 자신에게 음악공부를 시킨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이 본인에게 음악공부를 시키신 이유에 대한 생각으로 전체 응답자 중 55.1%의 응답자가 본인(나)의 관심이라고 답하였고 그 뒤를 이어 부모님의 음악에 대한 관심이 23.5%라고 답하였다. 이를 보아 많은 음악 전공생들이 음악에 대한 본인의 관심에 의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표-23>과 같다.

<표-23> 부모님이 본인에게 음악공부를 시키신 이유에 대한 생각

	빈도	퍼센트
부모님의 음악에 대한 관심	76	23.5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19	5.9
본인(나)의 관심	178	55.1
음악이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32	10.0
기타	14	4.3
무응답	4	1.2
합계	323	100.0

단위 : 명(%)

(22) 자신이 만약 2세를 낳을 경우 아이의 악기레슨을 받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만약 2세를 낳을 경우 아이의 음악교육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의견으로 전체 응답자 중 85.4%인 276명의 응답자가 2세에게 음악교육을 가르칠 생각이 있다고 답하여 음악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표-24>와 같다.

<표-24> 만약 2세를 낳을 경우 아이의 음악교육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의견

	빈도	퍼센트
있다	276	85.4
없다	46	14.2
무응답	1	0.4
합계	323	100.0

단위 : 명(%)

(23) 만약 의향이 있다면 몇 세부터 레슨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2세에게 음악교육을 시킬 경우 몇 세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으로 79.3%의 응답자가 10세 이전이라고 답하였으며 이를 보아 음악교육을 어릴 때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표-25>와 같다.

<표-25> 2세에게 음악교육을 시킬 경우 몇 세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빈도	퍼센트
5세 이전	93	28.8
5-7세	125	38.7
8-10세	38	11.8
11세 이후	19	5.9
무응답	48	14.8
합계	323	100.0

단위 : 명(%)

2. 교차분석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전공’, ‘악기를 처음 배운 시기’, ‘악기를 배운 기간’, ‘현재 음악전공 공부 시기’, ‘중간에 전공공부를 쉰 경험’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 * $p < .05$, ** $p < .01$, *** $p < .001$ 이하를 기준으로 중요한 데이터만을 넣었다.

(1) 어렸을 적 음악경험

다음 <표-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공에 따라 음악을 배우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성악, 작곡의 경우 각각 43.8%와 57.1%로 ‘나 스스로 음악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기악의 경우는 ‘부모님이 권유해서’라는 응답이 54.4%로 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즉 기악과가 다른 전공에 비해 ‘부모님의 권유’가 음악을 배우게 된 동기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음악을 처음 배운 시기에 따라 음악을 배우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5세 이전, 5-7세, 8-10세의 경우 각각 57.6%, 53.7%, 52.4%로 ‘부모님이 권유해서’라는 응답이 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11세 이후의 경우에는 65.3%로 ‘나 스스로 음악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이는 음악을 처음 배운 시기가 빠를수록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늦을수록 자신의 영향을 많이 받음을 알 수 있었다.

음악을 배운 기간에 따라 음악을 배우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1년 이하, 3-4년, 5년 이상의 경우 ‘부모님이 권유해서’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1-2년의 경우 ‘본인 스스로가 좋아서’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이를 크게 ‘2년

이하' 와 '3년 이상' 으로 나뉜 보았을 때 '2년 이하' 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좋아서' 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3년 이상' 의 경우 '부모님이 권유해서' 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처음 악기를 배우게 된 동기가 악기를 배운 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표-26> 처음 악기(성악, 작곡)를 배우게 된 동기는?

		나 스스로 음악이 좋아서	부모님이 권유해서	주위에서 배우는 사람들을 보고	학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타	전체	$\chi^2(p)$
전공	성악	39	36	11	0	3	89	21.925 * (.038)
		43.8%	40.4%	12.4%	.0%	3.4%	100.0%	
	작곡	36	19	4	0	4	63	
		57.1%	30.2%	6.3%	.0%	6.3%	100.0%	
	기악	52	92	14	2	9	169	
		30.8%	54.4%	8.3%	1.2%	5.3%	100.0%	
	기타	0	2	0	0	0	2	
		.0%	100.0%	.0%	.0%	.0%	100.0%	
음악을 처음 배운 시기	5세이전	9	19	2	0	3	33	48.752 *** (.000)
		27.3%	57.6%	6.1%	.0%	9.1%	100.0%	
	5-7세	42	72	13	0	7	134	
		31.3%	53.7%	9.7%	.0%	5.2%	100.0%	
	8-10세	29	43	9	1	0	82	
		35.4%	52.4%	11.0%	1.2%	.0%	100.0%	
	11세이 후	47	14	5	1	5	72	
		65.3%	19.4%	6.9%	1.4%	6.9%	100.0%	
무응답	0	1	0	0	1	2		
.0%	50.0%	.0%	.0%	50.0%	100.0%			
음악을 배운 기간	1년이하	5	13	3	0	0	21	27.628 * (.035)
		23.8%	61.9%	14.3%	.0%	.0%	100.0%	
	1-2년	26	17	0	0	0	43	
		60.5%	39.5%	.0%	.0%	.0%	100.0%	
	3-4년	21	27	6	1	4	59	
		35.6%	45.8%	10.2%	1.7%	6.8%	100.0%	
	5년이상	74	92	20	1	11	198	
		37.4%	46.5%	10.1%	.5%	5.6%	100.0%	
무응답	1	0	0	0	1	2		
	50.0%	.0%	.0%	.0%	50.0%	100.0%		
전체	127	149	29	2	16	323		
	39.3%	46.1%	9.0%	.6%	5.0%	100.0%		

*p<.05, ***p<.001

(2) 주위의 음악적 환경

다음 <표-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음악전공 공부시작 시기에 따라 주위에서 음악을 전공했거나 전공하는 사람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4-7세 25.0%, 초등학교 1-3학년 24.1%, 초등학교 4-6학년 35.7%, 중학교 1-3학년 17.9%, 고등학교 1-3학년 17.0%로 ‘친척이 음악을 전공했거나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때 현재의 음악전공 공부를 시작한 사람보다 더 일찍 전공공부를 시작한 응답자의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즉 현재의 음악전공 공부를 시작한 시기가 빠를수록 친척이 음악을 전공했거나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전공을 시작하는데 있어 친척의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음악을 배운 기간에 따라 주위에서 음악을 전공했거나 전공하는 사람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1년 이하 9.5%, 1-2년 2.3% 3-4년 15.3%, 5년 이상 12.1%로 ‘부모님이 음악을 전공했다’라고 말한 사람이 1년 이하, 1-2년의 응답자 보다 3-4년, 5년 이상의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이는 음악을 배운 기간이 길수록 부모님이 음악을 전공한 경우가 많으며 또한 부모님의 영향이 큼을 알 수 있었다.

<표-27> 주위의 음악을 전공했거나 전공하는 사람은?

		없다	부모	형제,자매	친척	기타	전체	$\chi^2(p)$
현재 음악전공 공부 시작 시기	4-7세	18	8	4	11	3	44	38.04 1* (.009)
		40.9%	18.2%	9.1%	25.0%	6.8%	100.0%	
	초등학교 1-3학년	15	4	3	7	0	29	
		51.7%	13.8%	10.3%	24.1%	.0%	100.0%	
	초등학교 4-6학년	14	1	2	10	1	28	
		50.0%	3.6%	7.1%	35.7%	3.6%	100.0%	
	중학교 1-3학년	32	16	1	12	6	67	
		47.8%	23.9%	1.5%	17.9%	9.0%	100.0%	
고등학교 1-3학년	81	7	19	25	15	147		
	55.1%	4.8%	12.9%	17.0%	10.2%	100.0%		
무응답	5	0	0	2	1	8		
	62.5%	.0%	.0%	25.0%	12.5%	100.0%		
음악을 배운 기간	1년이하	8	2	3	6	2	21	26.42 7* (.048)
		38.1%	9.5%	14.3%	28.6%	9.5%	100.0%	
	1-2년	32	1	3	2	5	43	
		74.4%	2.3%	7.0%	4.7%	11.6%	100.0%	
	3-4년	29	9	9	10	2	59	
		49.2%	15.3%	15.3%	16.9%	3.4%	100.0%	
	5년이상	94	24	14	49	17	198	
		47.5%	12.1%	7.1%	24.7%	8.6%	100.0%	
무응답	2	0	0	0	0	2		
	100.0%	.0%	.0%	.0%	.0%	100.0%		
전체		165	36	29	67	26	323	
		51.1%	11.1%	9.0%	20.7%	8.0%	100.0%	

*p<.05

(3) 청소년기 음악적인 경험

① 초·중·고 시절 경험했던 음악활동 분야

다음 <표-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중·고 시절 어떤 분야의 음악활동(연주회 등)을 경험했나에 대한 응답을 전공별로 살펴보면 성악과는 24.1%의 응답자가 초·중·고 시절에 합창단 경험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기악과의 경우 오케스트라 활동을 초·중·고 시절에 경험한 것으로 가장 많이 응답함을 볼 수 있다. 이를 보아 초·중·고 시절 경험했던 음악활동 분야가 현재의 전공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문항은 복수응답이 있음을 밝혀둔다.

<표-28> 초·중·고 시절 경험했던 음악활동 분야는? (복수응답)

		합창단	오케스트라	학예회	교회나 성당의 성가대	음악과 관련된 학교CA 활동	기타	없다	합계
전공	성악	49 24.1%	11 5.4%	20 9.9%	64 31.5%	51 25.1%	7 3.4%	1 .5%	203 100.0%
	작곡	24 20.9%	10 8.7%	10 8.7%	30 26.1%	26 22.6%	10 8.7%	5 4.3%	115 100.0%
	기악	50 13.9%	71 19.7%	50 13.9%	91 25.2%	83 23.0%	7 1.9%	9 2.5%	361 100.0%
	기타	0 .0%	1 50.0%	1 50.0%	0 .0%	0 .0%	0 .0%	0 .0%	2 100.0%
합계		123 18.1%	93 13.7%	81 11.9%	185 27.2%	160 23.5%	24 3.5%	15 2.2%	681 100.0%

② 음악공부를 계속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

다음 <표-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공에 따라 음악공부를 계속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성악과의 경우 ‘교회나 성당에서

의 음악연주'가 36.0%로 음악공부를 계속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작곡과의 경우 20.6%의 응답자가 'TV나 문화행사'를 통해 음악공부를 계속하는데 영향을 받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기악과의 경우 32.0%의 응답자가 '학교, 학원에서의 음악교육'을 음악공부를 계속하는데 영향을 받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이를 보아 성악과의 경우 교회나 성당에서의 찬양대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지며 작곡과의 경우 작곡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TV나 문화행사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악과의 경우는 많은 노력과 연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교나 학원에서의 음악교육이 영향을 많이 줬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음악전공 공부시작 시기에 따라 음악공부를 계속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중학교1-3학년이 40.3%로 가정에서의 가족과의 음악적 경험이 다른 집단에 비해 음악공부를 계속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4-7세의 36.4%, 초등학교 1-3학년의 41.4%와 초등학교 4-6학년의 32.1%의 응답자가 '학교, 학원에서의 음악교육'이 음악공부를 계속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여 현재의 음악전공 공부시기가 빠를수록 '학교, 학원에서의 음악교육'이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1-3학년에 음악전공 공부를 시작한 응답자의 경우 26.5%가 '교회나 성당에서의 음악연주'라고 답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즉 현재 음악전공 공부시작 시기에 따라 전공공부시작 시기가 빠를수록 학교나 학원에서 받는 수업에 영향을 받으며 전공공부시작 시기가 느릴수록 자신이 직접 흥미를 느껴 참여할 수 있는 교회나 성당에서의 음악연주를 통해 음악공부를 계속하는데 있어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표-29> 음악공부를 계속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은?

		가장에서의 가족과의 음악적 경험	TV매체나 문화행사	학교에서의 CA활동	교회나 상담에서의 음악연주	학교, 학원에서 음악교육	친구의 음악활동을 보고	기타	전체	$\chi^2(p)$
전공	성악	20	7	9	32	12	0	9	89	57.39 4 *** (.000)
		22.5%	7.9%	10.1%	36.0%	13.5%	.0%	10.1%	100.0%	
	작곡	8	13	5	8	15	1	13	63	
		12.7%	20.6%	7.9%	12.7%	23.8%	1.6%	20.6%	100.0%	
	기악	50	10	5	24	54	8	18	169	
		29.6%	5.9%	3.0%	14.2%	32.0%	4.7%	10.7%	100.0%	
	기타	1	0	0	0	1	0	0	2	
		50.0%	.0%	.0%	.0%	50.0%	.0%	.0%	100.0%	
현재 음악공부 시작 시기	4-7세	12	3	1	4	16	4	4	44	62.27 1 *** (.000)
		27.3%	6.8%	2.3%	9.1%	36.4%	9.1%	9.1%	100.0%	
	초등학교 1-3학년	11	0	1	4	12	0	1	29	
		37.9%	.0%	3.4%	13.8%	41.4%	.0%	3.4%	100.0%	
	초등학교 4-6학년	8	2	1	5	9	1	2	28	
		28.6%	7.1%	3.6%	17.9%	32.1%	3.6%	7.1%	100.0%	
	중학교 1-3학년	27	7	2	9	14	1	7	67	
		40.3%	10.4%	3.0%	13.4%	20.9%	1.5%	10.4%	100.0%	
	고등학교 1-3학년	20	18	13	39	31	3	23	147	
		13.6%	12.2%	8.8%	26.5%	21.1%	2.0%	15.6%	100.0%	
	무응답	1	0	1	3	0	0	3	8	
		12.5%	.0%	12.5%	37.5%	.0%	.0%	37.5%	100.0%	
전체	79	30	19	64	82	9	40	323		
	24.5%	9.3%	5.9%	19.8%	25.4%	2.8%	12.4%	100.0%		

***p<.001

(4) 현재 배우고 있는 음악전공에 대한 의견

① 현재의 전공을 선택하게 된 동기

다음 <표-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공에 따라 현재의 전공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성악과 작곡이 각각 77.5%, 76.2%로 기악을 전공하는 집단에 비해 ‘음악이 좋아서’ 라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기악은 다른 집단보다 ‘부모님이 원하셔서’ 와 ‘꾸준히 배워 온 것이어서’ 라고 응답한 사람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즉 성악과 작곡이 자신의 흥미에 의해 현재의 전공을 선택하게 된 경우가 많은 반면 기악의 경우는 부모님이 원하시거나 또는 꾸준히 배워 온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었다.

음악을 처음 배운 시기에 따라 현재의 전공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5세 이전의 14.2%가 ‘부모님이 원하셔서’ 라고 응답하였고 5세 이전의 27.3%와 5-7세의 30.6%가 ‘꾸준히 배워 온 것이어서’ 라고 응답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8-10세, 11세 이후는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65.9%와 81.9%의 응답자가 배운 시기가 늦을수록 ‘음악이 좋아서’ 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즉 음악을 처음 배운 시기가 빠를수록 부모님의 영향과 꾸준히 배워 온 영향이 크고 음악을 처음 배운 시기가 늦을수록 자신의 영향이 큼을 알 수 있었다.

음악을 배운 기간에 따라 현재의 전공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1-2년이 83.7%로 ‘부모님이 원하셔서’ 라고 응답한 3-4년, 5년 이상과 ‘꾸준히 배워 온 것이어서’ 라고 응답한 3-4세와 5년 이상에 비해 ‘음악이 좋아서’ 라는 의견이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즉 음악을 배운 기간이 길수록 부모님의 영향과 꾸준히 배워 온 영향이 크고 음악을 배운 기간이 적을수록 자신의 영향을 많

이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음악전공 공부시작 시기에 따라 현재의 전공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고등학교1-3학년이 76.9%로 중학교 1-3학년의 ‘부모님이 원하셔서’의 응답과 ‘꾸준히 배워 온 것이라서’라고 응답한 4-7세, 초등학교 1-3학년에 비해 ‘음악이 좋아서’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현재 음악전공 공부시작 시기도 시기가 늦을수록 시기가 빠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영향이 큼을 알 수 있었다.

<표-30 > 현재의 전공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부모님이 원하셔서	꾸준히 배워온 것이라서	음악이 좋아서	기타	전체	$\chi^2(p)$
전공	성악	7 7.9%	7 7.9%	69 77.5%	6 6.7%	89 100.0%	36.989 *** (.000)
	작곡	3 4.8%	12 19.0%	48 76.2%	0 .0%	63 100.0%	
	기악	28 16.6%	49 29.0%	86 50.9%	6 3.6%	169 100.0%	
	기타	1 50.0%	1 50.0%	0 .0%	0 .0%	2 100.0%	
음악을 처음 배운 시기	5세 이전	6 18.2%	9 27.3%	17 51.5%	1 3.0%	33 100.0%	27.843 * (.006)
	5-7세	19 14.2%	41 30.6%	71 53.0%	3 2.2%	134 100.0%	
	8-10세	9 11.0%	15 18.3%	54 65.9%	4 4.9%	82 100.0%	
	11세 이후	5 6.9%	4 5.6%	59 81.9%	4 5.6%	72 100.0%	
	무응답	0 .0%	0 .0%	2 100.0%	0 .0%	2 100.0%	
전체		39 12.1%	69 21.4%	203 62.8%	12 3.7%	323 100.0%	

		부모님이 원하셔서	꾸준히 배워온 것이라서	음악이 좋아서	기타	전체	$\chi^2(p)$
음악을 배운 기간	1년 이하	5	2	13	1	21	23.989 * (.020)
		23.8%	9.5%	61.9%	4.8%	100.0%	
	1-2년	3	1	36	3	43	
		7.0%	2.3%	83.7%	7.0%	100.0%	
	3-4년	8	10	39	2	59	
		13.6%	16.9%	66.1%	3.4%	100.0%	
5년 이상	23	56	113	6	198		
	11.6%	28.3%	57.1%	3.0%	100.0%		
무응답	0	0	2	0	2		
	.0%	.0%	100.0%	.0%	100.0%		
현재 음악전공공 부 시작 시기	4-7세	5	20	19	0	44	73.058 *** (.000)
		11.4%	45.5%	43.2%	.0%	100.0%	
	초등학교 1-3학년	5	14	10	0	29	
		17.2%	48.3%	34.5%	.0%	100.0%	
	초등학교 4-6학년	5	8	15	0	28	
		17.9%	28.6%	53.6%	.0%	100.0%	
	중 1-3학년	15	13	39	0	67	
		22.4%	19.4%	58.2%	.0%	100.0%	
	고등학교 1-3학년	9	13	113	12	147	
		6.1%	8.8%	76.9%	8.2%	100.0%	
무응답	0	1	7	0	8		
	.0%	12.5%	87.5%	.0%	100.0%		
전체	39	69	203	12	323		
	12.1%	21.4%	62.8%	3.7%	100.0%		

*p<.05, ***p<.001

② 지난 1년간의 실기 성적의 평점

다음 <표-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악을 배운 기간에 따라 지난 1년간의 실기 성적의 평점에 대한 응답들을 살펴보면 B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 1년 이하가 57.1%로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5년 이상은 37.9%로 다른 집단들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또한 전체적으로 지난 1년간의 실기 성적의 평점이 A로 1년 이하가 14.3%, 1-2년이 27.9% , 3-4년이 39.0% , 5년 이상이 36.9%

로 대체적으로 음악을 배운 기간이 길수록 응답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31 > 지난 1년간의 실기 성적의 평점은?

		A	B	C	D	무응답	전체	$\chi^2(p)$
음악을 배운 기간	1년 이하	3	12	1	2	3	21	30.454 * (.016)
		14.3%	57.1%	4.8%	9.5%	14.3%	100.0%	
	1-2년	12	18	4	0	9	43	
		27.9%	41.9%	9.3%	.0%	20.9%	100.0%	
	3-4년	23	28	3	0	5	59	
		39.0%	47.5%	5.1%	.0%	8.5%	100.0%	
	5년 이상	73	75	12	1	37	198	
		36.9%	37.9%	6.1%	.5%	18.7%	100.0%	
	무응답	0	1	0	0	1	2	
		.0%	50.0%	.0%	.0%	50.0%	100.0%	
	전체	111	134	20	3	55	323	
		34.4%	41.5%	6.2%	.9%	17.0%	100.0%	

*p<.05

(5)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배워 온 음악공부의 영향

① 전공실기 하는데 있어서 어려서부터 개인적으로 해 온 음악공부에 대한 영향도

다음 <표-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악을 배운 기간에 따라 어려서부터 개인적으로 해온 음악공부가 현재 전공실기를 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그렇다’ 라고 5년 이상은 46.0%, 3-4년의 경우 45.8%라고 가장 응답이 높았으며 5년 이상의 30.8%의 응답자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 ‘음악을 배운 기간이 길수록 개인적으로 배워 온 음악공부의 영향이 크다’ 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001)

**<표-32>전공실기 하는데 있어서 어려서부터 개인적으로 해온
음악공부가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전체	X ² (p)
음악을 배운 기간	1년	5	4	9	1	2	21	
	이하	23.8%	19.0%	42.9%	4.8%	9.5%	100.0%	
	1-2년	3	16	18	5	1	43	
		7.0%	37.2%	41.9%	11.6%	2.3%	100.0%	
	3-4년	9	27	15	5	3	59	
		15.3%	45.8%	25.4%	8.5%	5.1%	100.0%	
	5년	61	91	40	4	2	198	
이상	30.8%	46.0%	20.2%	2.0%	1.0%	100.0%		
무응 답	0	1	1	0	0	2		
		.0%	50.0%	50.0%	.0%	.0%	100.0%	
전체		78	139	83	15	8	323	
		24.1%	43.0%	25.7%	4.6%	2.5%	100.0%	

***p<.001

(6) 현재 음악에 대한 자신의 선호도와 견해

① 본인이 가장 즐겨 듣는 음악

다음 <표-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공에 따라 본인이 가장 즐겨 듣는 음악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클래식’이라는 응답이 성악이 76.4%로 작곡과 기악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대중가요는 성악이 11.2%로 작곡의 34.9%와 기악의 32.5%보다 월등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성악전공이 다른 전공에 비해 ‘클래식’을 가장 즐겨 듣는 음악으로 선호하는 이유에는 다른 음악전공과는 달리 가사를 읽기 위한 Diction공부와 함께 또한 몸이 악기이므로 유능한 성악가의 소리를 듣고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클래식을 더 많이 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표-33 > 본인이 가장 즐겨 듣는 음악은?

		클래식	대중가요	ccm	팝송	jazz	기타	전체	$\chi^2(p)$
전공	성악	68	10	6	2	0	3	89	34.263 * (.003)
		76.4%	11.2%	6.7%	2.2%	.0%	3.4%	100.0%	
	작곡	24	22	6	4	3	4	63	
		38.1%	34.9%	9.5%	6.3%	4.8%	6.3%	100.0%	
	기악	75	55	18	10	5	6	169	
		44.4%	32.5%	10.7%	5.9%	3.0%	3.6%	100.0%	
기타	1	1	0	0	0	0	2		
	50.0%	50.0%	.0%	.0%	.0%	.0%	100.0%		
전체		168	88	30	16	8	13	323	
		52.0%	27.2%	9.3%	5.0%	2.5%	4.0%	100.0%	

* $p < .05$

② 부모님이 음악공부를 시킨 이유

다음 <표-3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공에 따라 부모님이 자신에게 음악공부를 시킨 이유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본인(나)의 관심’이라는 의견이 성악과 작곡이 각각 60.7%, 74.6%로 기악 45.6%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기악과의 경우 다른 전공과는 달리 의외로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부모님이 음악 공부시킨 이유라고 10.1%의 응답자가 응답하여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이처럼 성악과 작곡은 자신의 흥미로 인해 부모님께서 음악공부를 시키셨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달리 기악과의 경우는 부모님께서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로 인해 시키셨다고 생각하였다.

현재 음악전공 공부시작 시기에 따라 부모님이 자신에게 음악공부를 시킨 이유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1-3학년이 65.3%로 ‘본인(나)의 관심’이라는 의견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4-7세와 초등학교 1-3학년, 초등학교 4-6학년의 경우 각각 31.8%, 41.4%, 35.7%로 다른 집단에 비해 ‘부모님의 음악에 대한 관심’이라고 말한 응답자가 더 높게 나타

났다. 이는 현재 음악 전공 공부를 시작한 시기가 어릴수록 부모님의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4-7세의 11.4%와 초등학교 1-3학년의 17.2%가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응답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현재 음악전공 공부시작시기가 빠를수록 부모님의 음악에 대한 관심과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에 의해 부모님께서 음악공부를 시키셨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전공공부 시작시기가 늦을수록 자신의 흥미에 의해 부모님께서 시키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34> 부모님이 자신에게 음악공부를 시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부모님의 음악에 대한 관심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본인(나)의 관심	음악이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기타	전체	$\chi^2(p)$
전공	성악	18	2	54	6	9	89	34.45 0 *** (.001)
		20.2%	2.2%	60.7%	6.7%	10.1%	100.0%	
	작곡	9	0	47	6	1	63	
		14.3%	.0%	74.6%	9.5%	1.6%	100.0%	
	기악	48	17	77	19	8	169	
28.4%		10.1%	45.6%	11.2%	4.7%	100.0%		
기타	1	0	0	1	0	2		
	50.0%	.0%	.0%	50.0%	.0%	100.0%		
현재 음악 전공 공부 시작 시기	4-7세	14	5	22	3	0	44	52.43 0 *** (.000)
		31.8%	11.4%	50.0%	6.8%	.0%	100.0%	
	초등학교 1-3학년	12	5	11	1	0	29	
		41.4%	17.2%	37.9%	3.4%	.0%	100.0%	
	초등학교 4-6학년	10	1	13	4	0	28	
		35.7%	3.6%	46.4%	14.3%	.0%	100.0%	
	중학교 1-3학년	20	4	33	7	3	67	
		29.9%	6.0%	49.3%	10.4%	4.5%	100.0%	
고등학교 1-3학년	18	3	96	17	13	147		
	12.2%	2.0%	65.3%	11.6%	8.8%	100.0%		
무응답	2	1	3	0	2	8		
	25.0%	12.5%	37.5%	.0%	25.0%	100.0%		
전체	76	19	178	32	18	323		
	23.5%	5.9%	55.1%	9.9%	5.6%	100.0%		

*** $p < .001$

③ 2세의 악기레슨 적정나이

다음 <표-35>과 같이 음악을 처음 배운 시기에 따라 ‘2세의 악기레슨은 몇 세부터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5세 이전의 56.3%의 응답자가 5세 이전이라고 응답하였고 5-7세의 경우 55.6%가 5-7세 사이가 적정나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즉 음악을 처음 배운 시기가 5세 이전과 5-7세인 경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배웠던 나이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반면 그 이후에 배운 응답자의 경우는 자신이 배웠던 나이보다 더 어린 나이인 5-7세 이하를 적정나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봐서 자신들의 경험에 비춰 봤을 때 대부분의 응답자가 어린 나이에 더 일찍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것 같다.

<표-35 > 2세의 악기레슨 적정나이는 몇 세라고 생각하는가?

		5세이전	5-7세	8-10세	11세이후	무응답	전체	$\chi^2(p)$
음악을 처음 배운 시기	5세이전	18	11	2	1	0	32	26.544 * (.047)
		56.3%	34.4%	6.3%	3.1%	.0%	100.0%	
	5-7세	33	65	14	3	2	117	
		28.2%	55.6%	12.0%	2.6%	1.7%	100.0%	
	8-10세	18	29	12	5	2	66	
		27.3%	43.9%	18.2%	7.6%	3.0%	100.0%	
11세이후	22	18	10	8	1	59		
	37.3%	30.5%	16.9%	13.6%	1.7%	100.0%		
무응답	1	1	0	0	0	2		
	50.0%	50.0%	.0%	.0%	.0%	100.0%		
전체		92	124	38	17	5	276	
		33.3%	44.9%	13.8%	6.2%	1.8%	100.0%	

* $p < .05$

3. 미래의 2세에 대한 음악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

미래의 2세에 대한 음악교육 시작연령과 관련하여 음악교육을 받게 할 의향이 있는지와 또 그에 대한 이유에 대해 설문지를 통해 물어보았다. 아래의 <표-36>과 같이 미래의 2세에게 음악교육을 시키겠다는 의견이 전체 323명 중 276명을 차지했다. 그리고 반대로 시키지 않겠다는 의견이 전체 323명 중 46명을 차지했다.

<표-36> 미래의 2세의 음악교육을 시킬 의향이 있는가?

	빈도	퍼센트
있다	276	85.4
없다	46	14.2
무응답	1	0.3
합계	323	100.0

단위 : 명(%)

먼저 미래의 2세에게 조기음악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 중에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있었다.

(1) 미래의 2세에게 조기음악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

전체 응답자 중 85.4%의 응답자가 미래의 2세에게 조기음악교육을 시키겠다고 응답하였다. 그에 대한 이유로는 자신이 음악공부를 늦게 시작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 미래의 2세는 자신과 같은 길을 밟지 않도록 조기음악교육을 시키겠다는 의견을 비롯하여 조기음악교육이 아이의 성장발달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설문지를 통해 답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 내가 채우지 못했던 것을 대리만족 시키기 위해
-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해서 전공실기공부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 조기음악교육은 어린이의 성장발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 정서적 안정과 두뇌발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 어릴 때 익힌 악기는 평생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악기 하나 정도는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EQ를 높이기 위해서
- 정서적 발달에 도움이 되고 음악적 재능 여부를 찾아보고 있다면 계속 시키기 위해서
- 어려서부터 음악을 접하게 되면 성장 후에 음악으로부터 많은 좋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주, 일찍 접할수록 더욱 친숙해지기 때문에
- 음악전공을 일찍 시작할수록 좋으니까
- 음악적 경험은 어릴 때부터 이뤄져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어렸을 때는 음악을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 음악을 접하는 시기는 태아기부터 혹은 신생아 때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악기레슨의 경우에는 너무 어릴 때부터 보다는 유년기부터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인 귀를 띄워줘야 커서도 감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 조금이라도 빨리 음악을 접하게 해주고 싶어서
- 어릴 때부터 음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나 자신이 후회하기 때문에
- 빠를수록 재미있게 잘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 어릴 때는 스피치처럼 모든지 잘 흡수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음악을 배워두며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
- 저학년 때부터 시작한 음악공부는 커서도 그 실력이 이어지기 때문에

- 조기로 여러 가지 음악을 시키다보면 나이가 들어서 더 도움이 많이 된다는 느낌을 내 경험을 비춰봐서 알기 때문에
- 어릴 때 배우는 것이 음감발달에 좋기 때문에

(2) 미래의 2세에게 조기음악교육을 시키지 않으려는 이유

전체 응답자 중 14.2%의 응답자가 미래의 2세에게 조기음악교육을 시키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에는 자신의 음악을 전공하면서 느꼈던 부정적인 경험들에 의한 것들이 많았다. 가장 많이 꼽은 이유 중의 하나가 음악을 공부시키면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일찍 음악공부를 시작한 응답자의 경우 자신이 일찍 음악을 공부함으로 얻은 스트레스를 자신의 2세가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음악을 일찍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미래의 2세에게 조기음악교육을 시키지 않겠다는 의견을 음악 전공을 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답한 경우가 많았음을 밝혀둔다. 구체적으로 설문지를 통해 답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 돈이 많이 들고 아이에게 부담이 될 것 같기 때문에
- 본인 스스로의 노력과 애정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 우리나라에서 음악을 시키지 않고 싶기 때문에
- 비용이 많이 들고 공부하는 여건이 매우 어렵고 그 만큼 성공하기까지 너무 힘든 길이기 때문에
- 음악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우리나라에서 음악을 전공해도 미래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아서
- 음악의 길이 어려우니까

- 최고가 아닌 이상 비전이 없기 때문에
- 힘들지만 아이가 원한다면 시킬 것이다.
- 돈이 많이 들고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
- 일찍 배우면 여유도 있고 경험이 많겠지만 요즘 대세에 따라 너도나도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이른 레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 음악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요약하자면 먼저 미래의 2세에게 조기음악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에는 현재 자신이 음악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조기음악교육이 음악을 전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는 입장이 많다. 또한 조기음악교육이 음악적인 면 뿐 아니라 정서적, 지능적으로도 도움을 준다고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답하였고 특히나 2세가 음악을 전공하게 될 경우에는 음악적인 경험을 빨리 하는 것이 전공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답하였고 늦게 음악공부를 시작한 본인과 같은 길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다.

위의 의견과는 반대로, 미래의 2세에게 조기음악교육을 시키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이유들보다도 현재 전공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험으로 미뤄 봤을 때 경제적인 부담이 크며 음악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조기음악교육을 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의견들 대부분이 미래의 2세가 음악 전공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I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 두 명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자녀들을 좀 더 잘 키우기 위하여 조기음악교육을 선호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기음악교육의 교육적 의미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는 현재 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기음악교육의 실태 뿐 아니라 조기음악교육이 현재 전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조기음악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조기음악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고찰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처음 음악공부를 시작한 나이가 어릴수록 음악을 시작하는데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점차 음악을 시작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본인의 음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학교, 학원에서의 음악교육이 음악공부를 계속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타 전공생들보다 기악전공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의 음악전공 공부시기가 빠를수록 학교, 학원에서의 음악교육이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와 학원에서 행해지는 음악수업이 아이들에게 단순히 음악적인 지식만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느끼고 즐기는 심미적인 체험을 통해 음악의 참된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교사들이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 음악이 좋아서 현재의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다수의 의견을 통해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 본인의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일찍 전공을 시작하는 기악전공생들보다는 성악과 작곡 전공생들이, 그리고 음악전공 공부를 늦게 시작한 전공생들일수록 전공 선택에 있어 자신의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음악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 본인의 음악에 대한 호감이 많이 작용하며 꼭 아이들이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음악에 대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여 음악이 삶의 윤희로가 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도와야 할 것이다.

넷째, 음악을 배운 기간이 길수록 개인적으로 배워 온 음악공부가 현재 전공실기를 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는 의견을 통해 주위에 음악을 전공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면 어린 나이 때부터 꾸준히 음악을 배우도록 권하여 음악전공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음악 전공 공부를 시작한 시기가 어릴수록 부모님의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음악을 전공하는데 있어 음악에 대한 본인의 관심뿐 아니라 부모님의 영향, 즉 주변 환경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어린 나이에는 주변의 환경이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음악을 전공하려는 아이가 있는 경우 부모님의 음악에 대한 관심 뿐 아니라 집안에서도 음악을 쉽게 접하며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여섯째, 거의 대부분의 음대생들이 자신의 미래 2세의 음악교육을 7세 이하의 나이일 때 가르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여 조기음악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음악전공에도 조기음악교육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으며 또한 조기음악교육이 아이들의

성장에도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2세의 조기음악교육에 대한 견해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세의 조기음악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조기음악교육이 음악적인 성장 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 감수성 발달, 지능의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들이 있었으며 어려서부터의 음악교육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음악 전공생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음악전공이 경제적으로 부담되고 힘든 길이며 성공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2세의 조기음악교육을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조기음악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음악전공생들의 이러한 의견들을 통해 음악전공에 있어서도 조기음악교육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꼭 음악을 전공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일찍 아이들에게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음악교육은 꼭 악기를 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선입견의 악기교육이나 이론 위주의 주입식 음악교육을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음악과 함께 친구가 되고 그 속에서 음악과 하나가 되어 음악을 느끼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교사가 안내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할 때에 진정으로 아이들이 음악 속에 숨겨진 참된 가치를 이해하며 음악을 통해 운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현재 음대에 재학 중인 음대생들을 대상으로 음악교육시기가 현재의 전공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함으로써 음악교육시기에 따라 음악 전공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음악을 배우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음악전공을 전공하는데 있어

더 수월하다는 의견들을 통해 조기음악교육이 음악전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조기음악교육의 올바른 지표가 설정되기를 바라며 기초 연구자료 제시를 통하여 조기음악교육 연구에 있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 제언 및 후속 연구

본 연구에서는 음대생을 대상으로 한 조기음악교육의 실태와 조기음악교육이 현재의 전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기음악교육이 음대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조기음악교육의 발전과 앞으로 음악을 전공할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효과적인 조기음악교육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자가 설문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공생들의 91.0%가 가장 처음 접한 음악적 경험으로 ‘피아노 레슨’이라고 응답하였다. 피아노가 가장 대중화되었고 보편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접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피아노 레슨’에만 편중된 조기음악교육보다는 다양한 악기를 접하거나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기음악교육프로그램이 누구나 원한다면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도록 보급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음악을 계속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학교, 학원에서의 음악교육’과 ‘가정에서의 가족과의 음악적 경험’이라고 답하였다. 그에 비해 ‘TV매체나 문화행사’라는 문항의 응답은 적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음악적 경험이 필요한 조기음악교육시기에 누구나가 쉽게 접할 수 있는 TV매체나 문화행사 등의 음악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져서 어린이의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가 4개의 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한국의 모든 음악을 전공하는 음대생을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할 수는 없으므로 전국적으로 보다 많은 대학교의 음대생들을 대상으로 음악교육시기가 현재의 전공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음대생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음악을 전공하는 예고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음악교육시기가 예고학생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후속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조사대상 분류에 있어 전공별로 크게 성악, 기악, 작곡으로 나뉘 기악의 경우 악기 전공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자세히 조사하지 못한 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기악을 더 세분화하여 기악에서의 악기 전공별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다섯째, 또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을 현재 음악계에서 음악적으로 성공을 거둔 실제 전문 연주자들, 또는 현직에 몸담고 계시는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음악교육시기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 음악교육시기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음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음악을 전공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여섯째, 미래의 2세에 대한 의견들 중 ‘조기음악교육을 시키지 않겠다’ 라고 응답한 의견들 중 상당수가 음악을 가르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의견과 또한 음악을 전공한다 해도 한국에서는 비전이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이러한 생각은 비단 음악을 전공하는 전공자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음악을 전공하기 위해 드는 비용의 불필요한 거품들이 제거되고 음악 전공자들이 좀 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일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목록

1. 국내 단행본

김은정 편역. 「좋은 음악이 총명한 아이를 만든다」

서울 : 경성라인 1994

나운영. 「음악조기교육과 재능개발」 서울: 음악춘추사 1977

「두산 세계대백과」 서울 : 두산, 2001

안종배. 「음악교육학개론」 서울 : 교육과학사 1991

유태희. 「유아발달과 음악교육」 서울 : 개문사 1983

유태희. 「음악교육학 개론」 서울 : 학문사 1973

이기숙, 김영주. 「유아음악교육」 서울 : 학문사 1996

이용일. 「음악교육학개설」 현대음악출판사. 1989

정원식 「정의의 교육」 서울 : 배영사, 1969

최시원. 「음악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 다라출판사 1999

2. 정기 간행물

송주승, 이영백, 송주병. 「시대별 음악교육의 흐름 및 조기음악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학회 논문집 음악연구 33권, 2003

송주승, 이영백. 「조기음악교육의 실태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음악학회 논문집 음악연구 28권, 2003

정세문. 「음악교육」 한국의 교육 제6집 서울 : 대한교육연합회, 1963

3. 국내 학위 논문

- 김소영, “조기음악교육이 음악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 김수진, “조기음악교육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 김승호, “유아기 음악교육이 인간형성에 미치는 중요성”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89
- 정화순, “바람직한 조기음악교육의 유형과 지도방안”
(석사학위논문, 경원대 교육대학원), 2004
- 허은진, “아동기 조기 음악교육의 필요성과효과적인 교육방법
: 피아노교육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 교육대학원), 2004
- 고세연, “조기음악교육의 지도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4. 외국 서적

- Barbera L. Address, 「*Music in early Childhood*」
(Washing D.C,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1973
- E.Gordon, 「*A three - year longitudinal predictive validity
study of the musical aptitude profile*」,
(Lowa City: university of lowa press), 1967

A B S T R A C T

The impact of the timing of Musical Education to majoring Music

Jeon, Yun Mi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rganize the theory and the educational meaning of education of music in the early age. Moreover its purpose is to consider on the importance of the period of education of music by analyzing the influence which the period of education of music can have on the choice of actual major.

For this study, I did a survey for 323 students who attend the music school of Sung shin women`s university, Konkuk university, Chung-ang university , which are 4-year college. A list of questions which were used in the survey was made and revised by the writer with the help of bibliography and the advice of a tutor.

To know the general characteristic of target, I operated Frequency Analysis. And to look into the actual condition of education of music in the early age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characteristic of

respondents , I operated crossing analysis; $\chi^2(p)$. Moreover the analysis of actual proof in this study is inspected in the significance level of *p<.05, **p<.01, ***p<.001.

And I used SPSSWIN 12.0 programme in the statistics handling. The result from the result of analysis is like this.

The first, the younger the students started to study music, the more influence they got from their parents.

The second, the education of music in school and private music academy has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continuation of the study of music. Moreover, the earlier the students choose the major of music, the more influence they got from the education of music in school and private music academy.

The third, the interest in music of themselves has great influence on the choice of major in case of the students who started major of music late.

The fourth, the longer the students study music, the more helpful the study of music which the students learned individually in the practice of major.

The fifth, the younger the students started music, the more influence they got from the parents interests in music.

The sixth , most of the students answered that it was proper to teach music under 7 year old for their children. From the answers, I realized that they thought the education of music in early age was important.

As a result, this study proved that the education of music in early

age has great influence on the choice of major, especially the earlier the children start to learn music , the easier the students choose music as major. Through all of them, the education of music in early age has the positive effect on the major of music. Therefore through the result mentioned above, I would like the proper indicator to be set and this study to be the help for the education of music in early age.

<부록1>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음악을 전공한 학생들의 조기음악교육의 실태와 음악적 배경에 관해 조사하여 조기음악 교육이 음악전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조기음악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만든 것으로 학생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지의 결과는 본인의 순수한 연구를 위한 것으로 본 연구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각 물음을 잘 읽으시고 그에 따른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전윤미

☞다음의 각 물음을 잘 읽고 해당란에 V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공이 무엇입니까?

- ①성악 ②작곡 ③기악() ④기타()

2~5번 문항은 어렸을 적 음악경험에 관한 설문으로 전공과 상관없이 맨 처음 음악을 배운 경험(악기, 성악, 작곡 등 포함)에 대한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 답을 체크해 주세요.

2. 처음 배운 악기(성악, 작곡)는 무엇입니까?

- ①피아노 ②바이올린 ③플룻 ④성악 ⑤기타()

3. 이 악기(성악, 작곡)를 처음 배운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5세 이전 ②5~7세 ③8~10세 ④11세 이후

4. 이 악기(성악, 작곡)를 배우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나 스스로 음악이 좋아서 ②부모님이 권유하셔서
③주위에 배우는 사람들을 보고
④학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⑤기타()

5. 처음 이 악기(성악, 작곡)를 약 얼마나 배웠습니까?

- ①1년 이하 ②1~2년 ③3~4년 ④5년 이상

6~7번 문항은 자신의 주위 음악적 환경에 대한 설문입니다. 잘 읽고 설문에 답해 주세요.

6. 주위에서 음악을 전공했거나 전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없다. ②부모 ③형제·자매 ④친척 ⑤기타()

7. 집에 있는 악기를 있는 대로 체크해 주세요.(실로폰, 캐스터네츠, 멜로디언 등 교육용 기본 악기제외)

- ①피아노 ②바이올린 ③플룻 ④첼로 ⑤기타()

13. 지난 1년간의 실기 성적의 평점 얼마입니까?

- ①A ②B ③C ④D

14. 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 전체 음악전공자들 중 본인의 실력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상위 30%이내 ②중상위 31~50% ③중하위 51~80%
④하위 81~100%

15. 자신의 현재 음악 전공 실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매우 만족한다. ②만족한다. ③보통이다. ④불만이다.
⑤매우 불만이다.

16~18번 문항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배워왔던 음악공부(전공악기, 비전공악기, 음악이론공부 포함)에 대한 설문입니다. 잘 읽고 답해 주세요.

16. 초·중·고 시절까지 개인적으로 배워온 음악공부(전공악기, 비전공악기, 음악이론공부 포함)가 초·중·고 음악수업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조금 그렇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아니다.

17. 현재 전공실기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서 부터 개인적으로 해온 음악공부(전공악기, 비전공악기, 음악이론공부 포함)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조금 그렇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아니다.

18. 현재 전공수업 중 시창·청음 수업을 하는데 어려서 부터 개인적으로 해온 음악공부(전공악기, 비전공악기, 음악이론공부 포함)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조금 그렇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아니다.

19~23번 문항은 현재 음악에 대한 자신의 선호도와 견해에 대한 설문입니다. 잘 읽고 답해 주세요.

19. 본인 가장 즐겨 듣는 음악은 어느 것입니까?

- ①클래식 ②대중가요 ③국악 ④ccm
⑤팝송 ⑥Jazz ⑦기타()

20. 부모님이 자신에게 음악공부를 시킨 이유는 무엇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부모님의 음악에 대한 관심 ②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③본인(나)의 관심 ④음악이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⑤기타
()

21. 자신이 만약 2세를 낳을 경우 아이의 악기레슨을 받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있다.(24-1번으로 가세요.) ②없다(25번으로 가세요)

22-1. 만약 의향이 있다면 몇 세부터 레슨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5세 이전 ②5~7세 ③8~10세 ④11세 이후

22-2.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23.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금까지 설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